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점으로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신앙의 토대 성경공부를 오는 17일(월) 오후 7시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성도들은 참여 바랍니다(새로 신청할 성도들도 함께).
3.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14주 차로 5월 12일(화)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말씀이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범위: 사도행전 26장 - 고린도전서 8장).
4.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한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랑 기도가 계속 이어져 어렵고 힘든 이 기간을 함께 극복하는 갈보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5. 각 공동체장들은 공동체 식구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심방하며 교제하기 바랍니다.
6. Lockdown 3단계 중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무료해지기 쉬운 이 기간을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7.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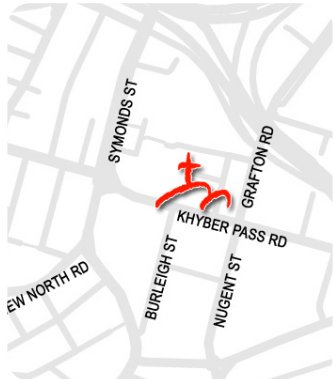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5월 교회사역일지

5월 3일(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주일)
부모주일
5월 31일(주일)
권사 기도회,
유아 세례식

5월 기도 순서

5월 10일 (주일)
손조훈 집사
5월 13일 (수)
가정예배
5월 17일 (주일)
이광희 A 장로
5월 20일 (수)
가정예배

5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자녀주일

22권 18호

2020.05.03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온라인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 송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 송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인도자
설 교	-----	이태한 목사
찬 송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1:1-4
설 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태한 목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 양승훈 선교사 소식입니다.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참 의미가 되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안에서도 은혜가: 언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늘 그동안 살아온 생활이 의심의 여지없이 지속될 것처럼 살아왔음을 새삼 놀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차드 교회들은 전쟁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비드 바이러스가 모든 예배를 중단시키는 당황스러움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몇 곳에서 드러지던 예배가 수십 곳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드러져 교회가 바로 여기 우리 모두의 곁에 생명의 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 차드 교회가 교회의 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각 가정의 예배가 훈련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기는 계기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 뜨겁고 감사하는 참 예배가 드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는 은혜: 지난 1월에서 2월은 참으로 바쁘면서도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여러 단기팀이 차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신학생과 목회자들과의 만남, 현지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만나는 체형 등 참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는 이 사역들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비드 19가 한국에서 크게 번지기 시작할 때, 라디오를 통해 소식 접한 현지 목회자 몇 분이 “우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가 어려운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며 선교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를 맞으며: 벌써 기온이 45도에 도달하여 조금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제약이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더위라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된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견실한 믿음 안에 매일 굳게 담대히 복음을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 가정

기도 제목

-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오히려 참 예배가 드러지는 계기가 되도록.
-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한국에서 학업 중인 딸들이 낯선 환경을 잘 이기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St David's 교회를 관리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 하사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2. 주의 은혜로 중단된 교회 공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 영적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도록.
3. 열방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2020년 4월 2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아담의 계보에서 배우는 유산> 창세기 5:1-5, 21-24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는지 알게 하는 것이 아담 계보의 목적입니다. 아담은 8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는데(5:4) 그 중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5:3). 여기에는 누구나 죽지만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습니다. 락다운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먼저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1:22, 5:1) 이는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경건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경건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롬 8:19). 셋의 자손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기에(5:2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히 11:5). 또 노아는 경건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6:9). 경건한 자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나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2)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창 1:28, 5:2). 그 복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다음 세대에도 전하여 이어지기에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창 9:1).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고 그 복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시 112:1-2). 자손들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3) 영생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 인류는 죄의 삯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창 5:24)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히 11:5).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요 11:25). 우리가 잘 때 다음 날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안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요 11:26). 가장 값지고 중요한 유산은 영생입니다, 이 유산을 줄 수 없다면 잘못된 산 인생입니다. 많은 유산을 주어도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직무 유기입니다.

이 값진 신앙의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